



서경대신문

1955년 5월 23일 창간
발행인·김범준 / 주간·방미영
편집장·이예은 / 인쇄인·발해기획
서울시 성북구 서경로 124 (02713)
전화·940-7257 / www.skpress.org

사회 >> 3면
알리 익스프레스의 등장 이전과 달라진 점은?

특집기획 >> 4면
제52대 총학생회 '한숲' 을 만나

현장르포 >> 5면
"인간과 기술의 공생!" 4차 산업 혁명 어디까지 왔을까?

제576호
2024년 1월 15일(월)

“그대들의 풀잎, 하나의 숲으로” 서경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한숲’ 출범

2024 서경대학교 학생회 선거 재투표 혼란 빚어



서경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한숲'이 출범했다. 지난 12월 1일 진행된 개표 결과 최종 득표율은 86.43%로 찬성 2,375명 반대 373명 기권 50명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이에 제52대 서경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경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시

행세칙 제44조에 의거해 당선 확정을 공고했다. 총학생회장은 김종휴(컴퓨터공학과 21) 학우, 부총학생회장은 서재완(글비 19) 학우다. 선거 과정에서 학적 정보 시스템 오류로 인해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선거는 무사

히 마무리됐다. 제52대 총학생회 한숲은 '그대들의 풀잎, 하나의 숲으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한숲 총학생회에 따르면 "서경대학교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풀잎, 학우분들을 하나하나 지칭하

는 말로 쓰이고 있다. 개인의 특징과 성격을 인정하고 다양함을 모아 하나의 숲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저희 한숲의 뜻"이라며 슬로건의 의미를 설명했다. 구성원은 김종휴 총학생회장(컴퓨터공학과 21)과 서재완 부총학생회장(글비 19), 그리고 장해송(메이크업디자인학과 23) 학우, 최민재(시각정보디자인, 19) 학우, 한사랑(공공인재 21) 학우, 한기찬(금융정보공학과 20) 학우, 김유진(아동 21) 학우, 김민정(글비 21) 학우, 김세진(글비 16) 학우다. 제52대 한숲 총학생회의 공약은 총 8가지다. 학교 주변 상권 제후, 취업 정보 및 프로그램 확대, 학교 홍보단 신설, 중앙감사위원회 구성, 식당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협의 추진, 각종 학생 행사 프로그램 정착화, 생활환경 개선 지속적 추진, 노후화 시설 보수체계 정비다. 한숲 총학생회는 "학교 주변 상권들과 제후를 맺어 많은 학우분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며 이외에도

"더 많은 졸업과 취업에 대한 정보를 원활하고 편리하게 얻어 갈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숲 총학생회의 공약 중 눈길을 가는 것은 중앙감사위원회 구성이다. "운영위원회 구조 개편을 통해 기존에 진행해 오던 학교 행사들을 정착화시키고 동시에 학우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더 다양하고 만족스러운 행사와 기획으로 모두가 즐거운 학교생활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한숲은 앞으로의 1년 임기 동안 건강한 학생 사회 건설을 최우선의 과제로 왕성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서경대 신문사가 제52대 한숲 총학생회와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특집 기획면(576호 4면)을 준비했다. 당선인 인터뷰를 비롯한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2024 서경대학교 학생회 선거가 학적 정보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재투표가 진행됐다. 기존 학칙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투표권이 없다. 학적이 별도로 따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학생회 선거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이 포함된 재학생 명단으로 선거가 진행됐다. 이에 따라 선거 둘째 날 모든 투표가 종료되고 재투표가 진행됐다. 본투표 기간은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였다. 재투표 일정은 학과별 단톡방 및 위로 총학생회 공식 인스타그램에 공지됐다. 이에 11월 28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9시로 변경됐다. 제52대 서경대학교 중앙선거



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의 투표권을 제하고 재투표를 진행하겠다"며 "학우 여러분께 혼란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 밝혔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사 령

1월 15일자로
아래 학우를 임·면합니다.

- ▶ 면 편집장 이예은 (소위 19)
- ▶ 면 수습기자 한채린 (아동 23)
- ▶ 면 수습기자 송채영 (경영 23)
- ▶ 면 수습기자 손기현 (영화 22)
- ▶ 임 편집장 송민경 (글비 21)
- ▶ 임 부편집장 김나연 (글비 23)
- ▶ 임 정기자 김나연 (아동 22)
- ▶ 임 정기자 유지우 (아동 20)

“굿바이 위로!” 제51대 위로 총학생회 임기 종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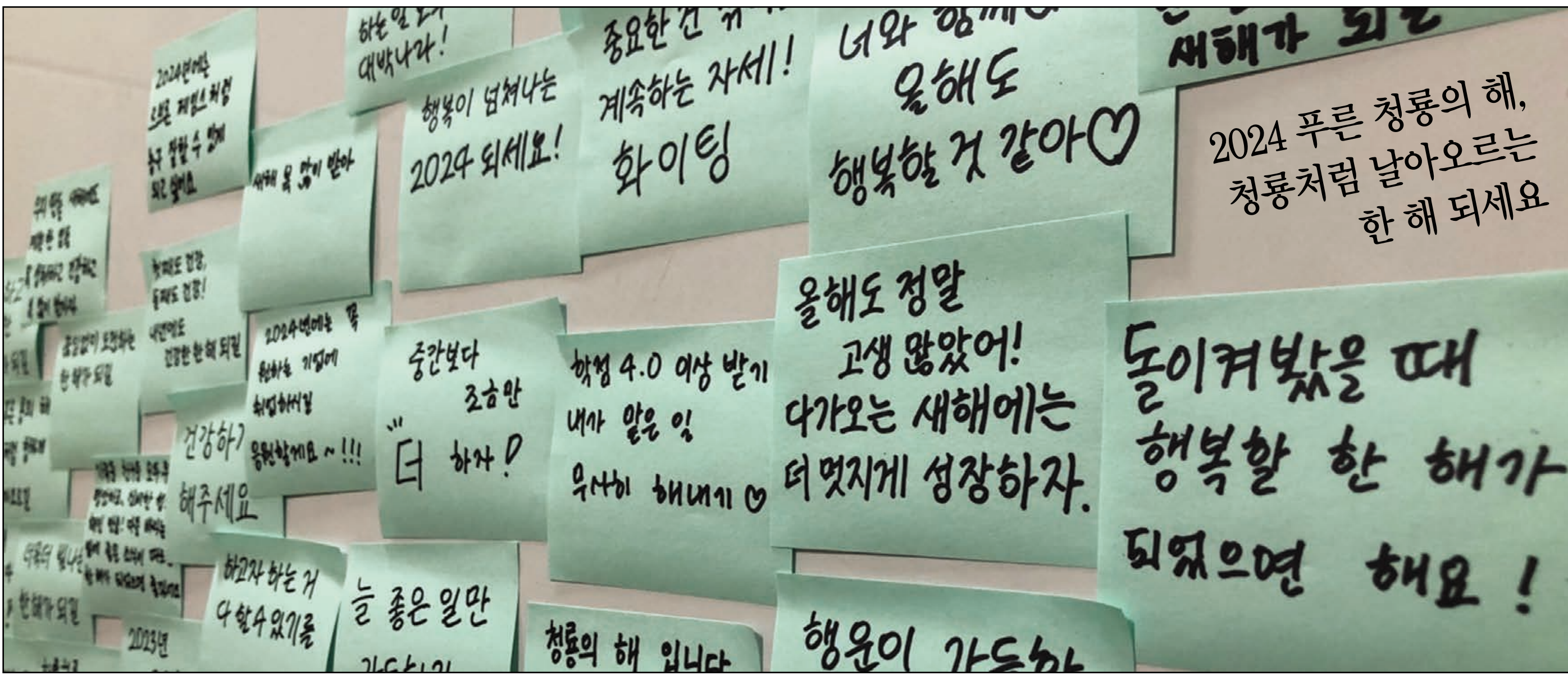
지난 12월 31일 자로 제51대 위로 총학생회의 임기가 종료됐다. 이들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퇴임사와

함께 최종 공약 이해 보고 사항을 올렸다. 이들은 앞서 노후화 사물함 교체 및 수리, 총학생회 주관 신선행사, 교내 공유기 시설 환경 및 속도 개선, 생활관 냉난방시설 개선, 교내 노후화시설 환경개선, 전공역량 강화 기회 제공, 교내 식당 개편, 시설 장학금 개설 등 총 8가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중 최종 이행 완료한 공약은 6가

지다. 이행하지 못한 공약은 첫 번째로 '노후화 사물함 교체 및 수리'다. 위로 총학생회는 "유담관 9층 전자 사물함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사물함 교체 예정이었으나 설문 조사 결과 전자 사물함 수요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했다" 밝혔다. "이외의 노후화 사물함은 노후화 시설물의 일환으로 취급하여 후대 총학생회에서 이어받아 진행하게 됐다" 말했다.

두 번째는 신설 장학금 개설이다. "근면 성실 장학금과 마일리지 장학금을 기획하여 장학과에 전달했다"라며 "둘 중 마일리지 장학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장학과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신속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말했다. 위로는 해당 사항에 대해 "학우분들과 한 모든 약속을 지키지 못해 아쉽고 무거운 마음"이라 말했다. "학우 여러분들과 한 모든 약속은 후대에도 계속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인계했다" 밝혔다. 위로 총학생회는 지난 1년간 앞서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서경대 풀잎봉사단, '사랑의 몰래산타 대작전'에 참여해 크리스마스의 감동 나눠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 서경대학교 풀잎봉사단이 한국청소년재단이 주최하는 '사랑의 몰래산타 대작전'에 참여해 7명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의 행복을 전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사랑의 몰래산타 대작전'은 자원봉사자들이 서울 전역으로 소외아동들에게 찾아가 크리스마스의 감동을 선사하는 사회공헌 행사다. 행사는 서대문청소년센터 직원이 제안하여 소외계층 아동 100명에게 찾아간 것을 시작으로, 18년째 이어져 왔다.

서경대 풀잎봉사단원 중 졸업생 2명과 재학생 5명, 총 7명은 지난해 12월 9일 진행된 산타학교를 통해 '진짜 산타'가 될 준비를 마쳤다. 이날 산타학교에서는 가정 방문 전후 주의 사항 안내와 산타 발성 교육 등 사전교육이 이뤄졌다.

행사 전날, 단원들은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아이들의 희망 선물을 종합 받은 결 토대로 각자 맡은 선물을 가져와 꼼꼼히 포장했다. 이후 활동 시물레이션을 해보며 철저한 점검에 만전을 다했다. 본래 요정 역할을 맡았던 졸업생 이종은(아동 19) 학우는 건강상의 이유로 행사 당일 불참하게 되어 전날 막바지 선물 준비에 손을 보았다.

행사 당일, 풀잎봉사단원 6명은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만났다. 산타를 맡은 김인우(물공 22) 학우는 흰 수염과 산타복을 착용하고, 아이들에게 선물과 함께 따뜻한 인사를 건네며 산타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해 냈다. 부단장 유지우(아동 20) 학우는 요정으로 변신하여 아이들에게 희망찬 모습으로 앞장서 다가갔다.

올동산타인 김나연(글비 23), 윤다인(경영 22) 학우는 산타가 등장하기 전, 흥겨운 분위기를 위해 '무릎 사슴곡' 노래에 맞춰 신나게 동을 했다. 단장 송민경(글비 21) 학우는 조장으로서 보호자 소통 및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활동 전반을 총괄했다. 모두 밝은 미소를 유지한 채로 노래를 부르고 울동을 하며 한껏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연출하고자 했다.

특히 노래 재생과 선물관리를 맡은 졸업생 정예일(화생공 17) 학우는 자차를 동원해 선물을 차에 싣고 나르면서, 단원들이 추울 때는 차 안에서 따뜻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그는 "선물만 전달하면 끝인 줄 알고 걱정이 많았는데 아이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나뉘어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임할 수 있었다. 선물을 받고 부끄러워하던 것도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니 뿌듯하고 마음이 따뜻해졌다. 이렇게 같이 의미 있는 활동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내년에도 참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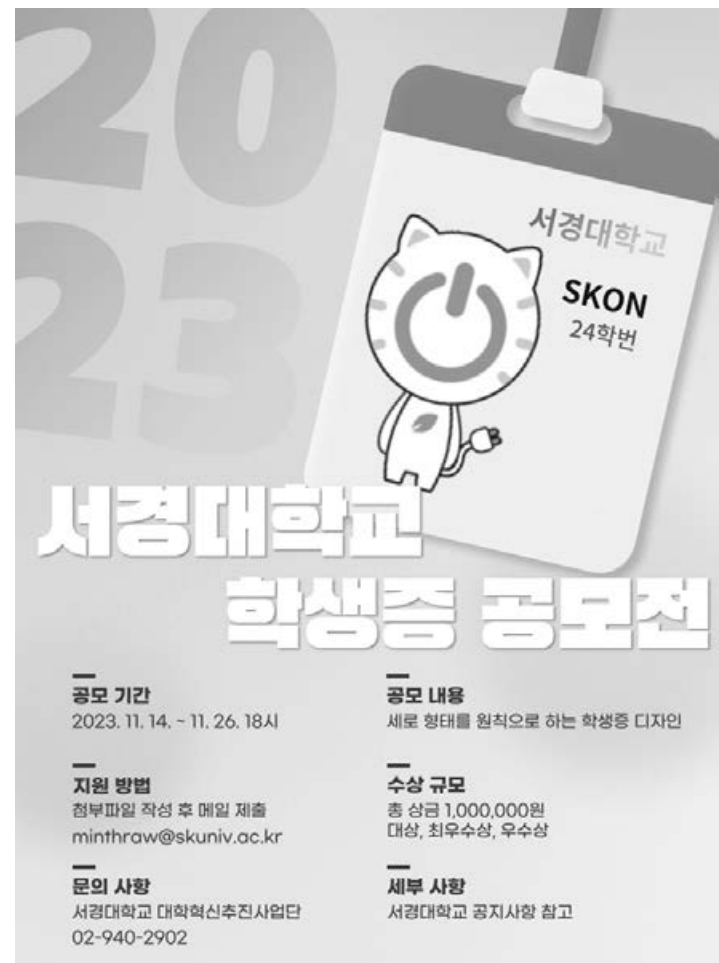
한편 풀잎봉사단은 지난해 가을, 서경대 사회봉사단원들을 필두로 하여 길음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봄감장, 여름 보양식, 겨울 김장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봉사 참여 독려와 기획 봉사를 위해 창단됐다. 풀잎봉사단은 지역사회에 이러한 나눔을 이어가고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한 봉사를 기획하고 있다. 오는 1월 27일에는 백사마을에 방문해 연탄 나눔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민경 기자 (illdawn012@skuniv.ac.kr)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학생증 디자인 어떻게 바뀌었을까?

2023 서경대학교 학생증 공모전 개최



지난 12월 서경대학교 학생증 공모전이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서 운영 및 진행했다. 공모전에는 학우들의 뜨거운 관심이 쏟아졌다. 1차 투표는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평가를 통한 5개의 우수 작품이 선정됐다.

12월 13일 수요일부터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까지 학생증 공모전 본선 투표가 진행됐다. 심사는 구글폼을 통해 교내 구성원 투표 100%로 이루어졌다. 공모전 상금은 총 100만원이다. 대상에게는 40만원 최우수상에게는 3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15만원이 지급됐다. 본선 투표에는 총 5개의 작품이 선정됐다. 학우들은 본인이 마음에 드는 디자인에 투표하며 의사를 표현했다. 대상에는 공연예술학부 김*호 학우의 작품이 최우수상에는 메이크업디자인학과 엄*형 학우의 작품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디자인학부 박*르, 장*찬 학우의 작품이 선정되며 영예를 안았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지난 12월 1일 월요일 오후 4시, 서경대학교 분관 8층 컨벤션홀에서 '2023 HUB 16 MORE THAN FASHION'이 진행됐다. 이번 공연은 서경대학교 공연예술부 무대 패션전공이 주최 및 주관한 행사다.

MORE THAN FASHION은 '패션 이상의 가치를 넘어 지속 가능한 윤리적 미래를 함께 이루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HUB 16은 통합형 공연예술 창의 융합인재 양성 프로그램이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부터 4년 연속 대학혁신지원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는 공연예술대학, 미용예술대학, 융합대학 등 17개 전공이 참여했다. 이를 통해 참여 학우들은 타 학과와 함께 협력하며 협동심을 키울 수 있었다. 이외에도 외부 예술가들까지 참여해 보다 높은 수준의 무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선 보인 무대는 'Come All Creators', 'ART & TECH', 'Lady Marmalade', 'Serenity', '연극 갈라', 'Hole in one', '메르헨의 유혹', 'Combination', 'Do not cross', 'Star_I', '뮤지컬 갈라', 'Petrichor', '무대디자인' 등 총 12가지다.

공연예술학부 무대 패션전공 '2023 HUB 16 MORE THAN FASHION' 개최, 전공의 벽 허물고 협동의 의미 깨닫는 시간 가져

학우들의 꿈과 노력 그리고 열정이 빛났던 2023 HUB 16 MORE THAN FASHION, 해당 공연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HUB 16 행사의 학생준비위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학우 인터뷰]
- 박기희 학우 (공연예술학부 무대 패션전공, 21)

Q. HUB 16의 뜻은 무엇인가?
A. HUB 16은 이번에 'MORE THAN FASHION'이라는 주제로 쇼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뜻은 '패션을 넘어 다양한 공연의 화합을 추구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HUB 16을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
A. HUB 16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다양한 전공들과

학과들과의 교류가 많아지는 시기이다 보니 그 부분에서 생긴 추억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리허설을 거치면서 점차 높아지는 완성도에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고 이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Q. 학과의 커리큘럼이 HUB 16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나요?
A. 학과 커리큘럼 중 하나라도 이미 HUB가 자리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더없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Q. HUB 16을 진행하고 느낀 점은 무엇인가?
A. HUB 16을 진행하면서 다 함께 진행하는 큰 쇼이니만큼 완성도가 높게 나와서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또 노력한 만큼 진행되어서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Q. HUB 16을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
A. HUB 16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다양한 전공들과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2023 수고했어 지난한해 돌아보니 최선을다해 살아왔네 남이아닌 나자신도 토닥토닥 격려하자

한 눈에 보는 이슈

정치: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논란의 PT와 민심 달래기용 떡볶이 먹방?
경제: '해외직구의 새로운 형태' e-커머스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의 등장 이전과 달라진 점은?
사회: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옳은 방향일까?
문화: '눈 가리고 아웅' 블랙프라이데이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연예: 봉준호·윤종신 등 문화예술인연대회의 지난 12월 기자회견... "故 이선균 사건 진상 규명 원해"
스포츠: 2023 AFC 카타르 아시안컵 개막... "아시아 축구 최강자는 누구?"

※ 자세한 내용은 사회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는 이슈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논란의 PT와 민심 달래기용 떡볶이 먹방?

대한민국이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다. 지난 11월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73회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개표가 이뤄졌다. 이탈리아 로마가 17표, 대한민국 부산이 29표,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가 119표로 사우디는 총 165개의 표 중 2/3 이상을 득표해 1차 투표 만에 엑스포 유치를 따냈다.

우리나라는 세 국가 중 가장 먼저 최종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나섰다. 연사가 부산의 장점과 부산 엑스포의 비전 등을 소개하는 동안 화면에는 PPT 영상이 나왔다. 논란이 된 건 마지막에 공개된 30초 가량의 홍보영상이었다. 가수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흘러나오고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인 지휘자 정명훈, 소프라노 조수미, 배우 이정재와 유명 KPOP 가수인 김준수, 사이니 태민, 몬스타엑스, 드림캐처 등이 등장했다.

홍보영상에는 엑스포의 취지에 걸맞는 부산의 아름다움과 비전을 나타내는 특별한 메시지가 없었다. 10여 년 전 ‘강남스타일’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연예인들의 투표 호소만으로 구성된 홍보영상에 시민들의 흥평이 쏟아졌다.

이에 영상 제작에 투입된 비용과 제작업체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면서 세금 낭용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 11월 30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에 투입된 예산을 파악한 결과, 엑스포 PT 제작 등에 53억이 투입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11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큰 표 차이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한 것에 대해



▲ 출처 : 조선 DB

“국민들을 실망시켜 죄송하다”라 말했다. 엑스포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엑스포 개최를 따낸 사우디에 대해서도 축하의 뜻을 전했다.

엑스포 유치 실패가 확정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첫 부산 방문 일정에는 재계 총수들이 함께했다.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시민대표, 부산 지역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격려 간담회를 가졌다.

‘부산시민의 꿈과 도전’ 간담회의 메시지는 이번 엑스포 유치 실패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는 ‘부산 이즈 비기닝’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개항, 산업은행 이전, 북항 재개발 등 부산 지역 현안 등을 언급하며 엑

스포 유치 실패와 무관하게 이러한 지역사업이 추진될 것임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주요 재계 총수들은 부산 국제시장에서 떡볶이와 튀김, 빈대떡 등 ‘서민 음식’ 시식을 선보였다. 이에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이 시장에서 떡볶이를 먹는 낯선 광경이 SNS에서 화제가 됐다.

[시민 인터뷰]

- 김혁진 (31세), 이영림 (67세)

Q.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윤석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시장 떡볶이 먹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김혁진). 엑스포 유치 실패로

인해 낙담했을 부산시민들의 심정을 정부 지원 및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직접 부산까지 방문한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재계 총수들까지 동원하여 떡볶이를 먹은 것은 민심을 달래기 위한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었느냐고 생각합니다.

A.(이영림). 엑스포 유치 실패를 책임지기 위해 부산에 방문해 시민들을 위로하는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시장에서 떡볶이와 튀김을 먹는 모습이 서민적이고 친근한 인상을 주어 국민들과 가까워지려는 태도를 보인 것 같아 적합한 대처였다고 생각합니다.

김나연 수습기자

(nykim0130@skuniv.ac.kr)

일회용품 사용규제 완화... 옳은 방향일까?

지난 2023년 11월 7일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란 2022년 11월 24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을 두고 외식업 매장 등에서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을 사용 금지하는 제도다.

정부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11월 24일부터 외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었지만 소상공인의 부담과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고려해 일회용품 관리 방안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종이컵

을 사용금지 규제에서 제외했다. 더하여 일회용품 관리 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발표에 따른 현장의 반응은 엇갈렸다. 환경단체는 이에 반발하며 시행 촉구를 향한 목소리를 높였지만,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불편함 등 현실적인 측면에서 반발도 있었다. 환경운동연합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10명 중 9명이 우리나라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일회용품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정책 도입에 전체 조사 인원의

81.4%가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긍정적인 반응보다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 것이다. 이에 일회용품 규제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일회용품 대신 사용되는 종이 빨대, 머그컵, 텀블러, 에코백 등의 다회용품이 결코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종이 빨대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플라스틱 빨대보다 5.5배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다회용 컵을 세척하는 데 사용되는 세제 역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다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생 문제와 경제적 부담은 소비자를 압박했다.

일회용품 규제는 풀렸지만 환경을 생각해 친환경 용품을 사용하겠다는 업체도 있다. 편의점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CU, GS25는 일회용품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빨대를 사용하고 일회용 소풍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경기도는 ‘배달 음식 일회용기 퇴출’을 결정했고, 충청남도는 지난 6월 ‘청사 안 일회용품 사용·반입 전면 금지’를 선언해 주목받았다.

[시민 인터뷰]

- 장유진 (가명/22세), 이채민 (가명/20세)

Q. 매장 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장유진).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철회되면서 매장에서 종이컵 대신 머그잔이나 유리잔을 사용하는 경우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이채민). 제가 일하는 카페의 경우 일회용품 사용 규제 이전에 종이 빨대를 사용했었으나, 규제 이후 플라스틱 빨대로 변경했습니다. 종종 들어왔던 종이 빨대에 대한 손님들의 불편 사항이 플라스틱 빨대 도입 이후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일회용품 대체품의 품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나연 수습기자

(n4yexn@gmail.com)



‘해외직구의 새로운 형태’ e-커머스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의 등장 이전과 달라진 점은?



▲ 출처 : 알리 익스프레스 공식 홈페이지

해외직구 플랫폼 알리 익스프레스(AliExpress)의 국내 시장 침투 속도가 상상치 않았다.

알리는 알리바바 그룹의 해외 직구 플랫폼이다. 최근에는 배우 마동석을 광고 모델로 선정하며 소비자들에게 이름을 알렸다. 알리는 지난해 여름 1천억원 투자 계획을 밝히며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가입자 수는 벌써 600만 명을 넘어선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저렴한 가격, 빠른 배송 속도 등이 소비자의 마음을 두드린 것이다. 최근에는 CJ대한통운과 협력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지난해 1분기 350만 건이던 CJ대한통운의 알리 물량은 3분기 900만건으로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중앙일보] 그야말로 상부상조인 셈이다. 반면 쿠팡, 11번가, G마켓 등 경쟁 업체의 수심은 깊어지고 있다. 알리의

급속한 성장이 소비자 유입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이커머스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알리 익스프레스. 이에 대한 소비자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시민 인터뷰를 진행해 봤다.

[시민 인터뷰]

- 이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자, 27세)

Q. 알리 익스프레스를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A. 네. 작년 겨울 이용해 본 적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운영 중인데 사일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용해 보았습니다. 구매한 상품은 주방 집기류와 소풍용품입니다. 해외 직구로 물건 사입해 판매해 보는 건 처음인데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고 배송도 빨리 와서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눈 가리고 아웅’ 블랙프라이데이 누구를 위한 행사인가?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맞아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 전후로 여러 기업이 대규모 할인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국내 블랙프라이데이는 ‘블프 폼스’라는 이름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상품의 가격과 할인율을 동시에 높여 실제 가격은 비슷하지만, 할인율은 더 높아 보이게 속였기 때문이다.

국내 대표 패션 플랫폼인 무신사는 올해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연중 최대규모 할인’, ‘무진장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슬로건으로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온, 오프라인 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3,062개 브랜드와 301,280개의 상품 수로 최대 80%의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했다. 작년 대비 브랜드 수를 약 50%, 상품 수를 약 30% 늘려 행사 규모가 확대됐으며 할인 기간 12일간 최종 매출 3천83억 원을 올리며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그러나 행사 첫날인 22일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는 ‘무신사 블랙프라이데이 두 장 요약’ 제목의 글이 게시되며 이목을 끌었다. 해당 글에는 동일한 바지를 10월 구매 시에는 2만 6,970원,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는 3만 9,800원으로 구매할 수 있다며, 연중 최대 규모 할인행사 기간이라는 블랙프라이데이에 오히려 가격이 올라간 것이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무신사 측은 ‘통상적 할인이나’, ‘마케팅 할인이나’에 따라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플랫폼에서 평소에는 브랜드 프로모션 할인이 진행되며 회원 등급 할인 쿠폰이 발급되고 구매 적립금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는 할인 쿠폰과 적립금 할인이 불가했고 블랙프라이데이 프로모션의 높은 할인으로 대체됐다. 이에 따라 평소에도 여러 가지



할인을 적용한 가격이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프로모션 문제는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에 만연하다. 상품의 판매가와 할인율을 조정하여 비싸 보이게 만들고 ‘역대 최대 할인율’과 같은 홍보 문구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후 할인 쿠폰 불가로 추가할인을 막는 식이다. 이러한 마케팅에 대해 차세대 스마트 소비자로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 소비인지 고민이 필요한 실정이다.

[시민 인터뷰]

- 선민수 (대학생, 25세)

Q. 블랙프라이데이 쇼핑리스트의 가격과 동일 제품에 대한 현재의 가격을 비교 후 느낀 점을 말씀 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A. 네, 모든 제품 11월 26일 구매하였으며 블랙&화이트 양말 10개 세트, 스포츠 양말 5족, 스웨이드 무릎 자켓 1개, 터틀넥 니트 티셔츠 2개, 니트 집업, 밴딩 슬랙스 1개, 코듀로이 팬츠 1개, 발열 내의 하의 1개 구매하였습니다. 당시 총가격은 273,160원이었습니다. 현재 동일 제품 추가가격은 312,761원으로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39,601원 저렴

하게 쇼핑했습니다. 다만, 당시 제가 할인율이 특히 높은 상품을 고르다 보니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이지 만약 지금 높은 할인율의 비슷한 품질 제품을 고른다면 브랜드만 다를 뿐 비슷한 가격과 품질의 쇼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이번 블랙프라이데이 기간에 무신사 플랫폼을 통해 쇼핑하셨는데 이번 할인율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무신사 앱을 통해 옷을 종종 구매하는데 할인 쿠폰이나 적립금으로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논란으로 인해 평소의 높은 할인율도 일부러 원가 가격을 높게 책정하고 할인 쿠폰만큼 적립금으로 할인을 많이 해주는 것처럼 속이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저같이 패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상품의 가격이 품질 대비 괜찮은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 책정에 대해 의구심이 생깁니다. 또, 무신사가 남성 패션 플랫폼에서 가장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비교, 경쟁 플랫폼이 없어서 패션 쇼핑 선택지가 무신사뿐이라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재근 수습기자

(worm1207@skuniv.ac.kr)

풀잎 하나하나를 모아 울창한 숲을 만들다

“그대들의 풀잎, 하나의 숲으로”

지난해 12월 1일, 제52대 서경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투표 결과 투표율 53.54%를 기록한 가운데 득표율 86.4%로 총학생회에 '한숲'이 당선됐다. 2024 서경대학교 학생회 선거는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해당 기간 내 24시간 투표할 수 있었다. 본투표 기간은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9시부터 11월 30일 목요일 18시까지였으나, 학적 정보 시스템 오류로 인해

11월 28일 화요일 18시부터 11월 30일 목요일 21시까지 재투표를 실시했다. 이에 더해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35조에 의거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 결과 12월 1일 18시까지 연장투표가 실시됐다. “그대들의 풀잎, 하나의 숲으로”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출범한 총학생회 '한숲'은 우리 학교의 상징이자 학우를 지칭하는 말로 쓰이는 '풀잎'을 모아 하나의 숲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뜻을 담았다. '한숲'은 학교 주변 상권 제휴, 취업 정보 및 프로

그램 확대, 학교 홍보단 신설, 중앙감사위원회 구성, 식당 만족도 향상을 위한 협의 추진, 각종 학생 행사 프로그램 정착화, 생활관 환경 개선 지속적 추진, 노후 화 시설 보수 체계 정비를 약속했다. 푸른 용의 해를 맞이하여 과연 풀잎을 어떻게 하나하나 모을 것인지 2024년 서경대학교를 이끌 어갈 제52대 서경대학교 총학생회 '한숲'을 만나 포부를 들어봤다.

제휴 범위에 대해 학교 측과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합니다. 식당으로만 제한을 두지 않고 세탁소, 카페 등 생활과 직결되는 더 넓은 범위의 상권과의 제휴 또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제52대 '한숲'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 부총학생회장 당선 인터뷰

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대들의 풀잎, 하나의 숲으로” 제52대 '한숲'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김컴퓨터공학과 21학번 김종휴, 부총학생회장 글로벌비즈니스학부 불어 전공 19학번 서재완입니다.

2. 총학생회에 출마한 계기는 무엇입니까?

저희 또한 일반 학우의 입장으로 직접 겪은 학교생활에 있어 부족했다고 느낀 점들과 아쉬운 부분들을 더 발전된 학교로, 더 빛나는 학생 사회를 만들고 싶다는 의지로 총학생회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3. 당선된 소감은 어떠십니까?

제52대 총학생회 선거에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학우분들께 감사드리며, 서경대학교 학우분들께서 만족하는 학생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정진하겠습니다. 선거 운동 때 외친 저희의 목소리가 잊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보여드릴 것이며, 학우분들이 의지하실 수 있도록 항상 소통하겠습니다. 또, '한숲' 총학생회는 말과 글뿐만이 아닌 행동과 결과를 학우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제52대 한숲 총학생회의 행보에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선거에 관심을 가져 주신 모든 학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4. '한숲'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는 무엇입니까?

저희의 추구하고 목표는 슬로건에 나타납니다. “그대들의 풀잎, 하나의 숲으로”. 학우분들의 모든 의견을 그리고 어느 한 학우분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고 항상 경청하며 더 빛나고 발전된 학생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자 가치입니다.

5. 중앙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궁금합니다.

기존에 진행해오던 장부 검사와 공개는 각 단대와 총학생회에서 진행했다면, 저희는 하나의 감사 기구를 만들으로써 더 정확하게 증빙된 장부를 보여드리기 위해 이 공약을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학생회 인원이 아닌 학우들로 중앙감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6. 학교 홍보단 신설 공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세부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시점에서는 학교 측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지만, 저희의 목표는 학교의 홍보와 학교 행사, 공모전 등 내부적인 알람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뼈대를 잡는 단계로써 홍보단의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한숲' 총학생회는 수험생들에게 서경대학교를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7. 어떤 학생 행사 프로그램을 정착화시킬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대 총학생회에서 코로나 시대 이후 학교의 대면화 수업에 맞는 행사들과 프로그램을 기획했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또한 대부분의 수업들이 대면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에 유지해오던 축제 방식 또는 국토 순례, 신입생 문화제, 정야 체전 등 많은 행사들의 안정화 및 정착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더 발전된 기획과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학우분들께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8. 학교 '주변상권 제휴'에 대한 자세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식당 외에 다른 제휴를 생각한 것이 있으십니까?
서경대 캠퍼스 앞과 정릉 인근 상권과의 컨택을 우선시할 것이며, 이외에도 성신여대, 길음, 혜화까지도 고려 중입니다. 현재로서는

9. 서경대 학생으로서 기존 학교 운영에 아쉬웠던 점을 어떻게 개선하고 싶으신가요?

과도기를 지나며 점진적으로 학교는 변화했지만, 이러한 변화에 따른 학교 측과 학생회의 정확한 입장을 학우분들께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숲'은 원활한 소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온고지신'이라는 사자성어처럼 옛 것을 받아들이고, 새것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소통이라는 수단을 통해 더 발전된 학교와 학생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0. 재학생 학우들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학우들의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취합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기존에 유지 되어오던 소통 방식 또한 여러 부분에서 학우분들과 소통할 기회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숲' 총학생회에서는 학우분들과의 소통을 위해 기존에 유지 되어오던 방법들과 SNS를 통한 소통을 하였습니다. 학교와 총학생회의 공지 등 여러 소식들을 많은 소통의 창구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1. 총학생회로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과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중, 어디에 초점을 둘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는 두 부분 다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행사 프로그램들을 정착화 시킴과 동시에 아쉽고 부족했던 부분들을 학우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 및 보완할 것입니다. 중앙감사위원회 그리고 홍보단 신설과 같은 새로운 사업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것입니다. 이렇게 양립이 되는 공약을 내세운 것은 더 발전된 학생 사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한숲' 총학생회는 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으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2. 전대 총학생회와 현 '한숲' 총학생회와의 차별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대 총학생회는 혼란스러운 과도기적 시기였고, 앞으로의 학생 사회를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복지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가 총학생회 소속이 되었고, 그로 인해 더 다양한 활동 및 행사를 총학생회가 주관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 '한숲' 총학생회는 학우분들께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대와 상관없이 '한숲' 총학생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에 대해 칭찬 또는 비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칭찬과 비판은 저희를 자극시켜 더 발전하는 총학생회가 되기 위한 발판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의 행보를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 결의나 학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항상 지켜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벽한 총학생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에 대한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같이 만들어가는 학생 사회를 위해 총학생회가 학교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느 한 학우분의 의견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부분에는 칭찬을, 불만족스러운 부분에서는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상 수긍하겠습니다. 변화의 파도 속에서, 새로운 변화들을 정착시키며 더 나은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과 기술의 공생!” 4차 산업 혁명 어디까지 왔을까?

4차 산업 혁명은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시점에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버튼 한 번만으로 시나리오가 써지고, 노래가 작사되며, 그림이 그려지는 세상이 도래했다. 인간의

턱말까지 쫓아온 4차 산업 혁명. 그렇다면 우리는 기술의 변화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하지 않았던가. 신문사 취재부는 4차 산업 혁명 기술

의 발전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심야 자율 주행 버스', 'ChatGPT', '생성형 AI' 등을 직접 체험하고 비교 분석해봤다. 직접 기술을 마주해보면 결과 역시나 놀라움의 연속이었

다. 본 기사를 접하며 독자들 또한 4차 산업 혁명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혹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 서경대 신문사와 함께 4차 산업 혁명이라는 파도에 올라타보자.

__ 다양한 AI 활용 분야



▲ 어도비 'Firefly'로 생성한 '인공지능의 미래' 프롬프트 이미지

지난 2023년은 인공지능(AI)의 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AI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그 표문을 연 건 단연 '챗GPT'다. 2022년 11월 30일 오픈AI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GPT-3.5'를 소개한 것이 그 시작이다. 이후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인기와 함께 다양한 AI가 떠올랐다. 이에 AI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AI의 현주소를 서경대 신문사 취재부가 조사해 보았다.

AI 기술의 고도화는 딥러닝으로부터 시작된다. 딥러닝은 AI가 사람의 사고방식을 할 수 있도록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인간의 사고는 신경망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와 유사한 과정을 컴퓨터의 처리 속도로 한다는 점이 혁신적이다. 딥러닝을 통해 기존에 읽을 수 없던 인간의 손 글씨와 말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AI가 학습 경험을 최적화하고 학생들의 개별적인 학습 경험 향상을 지원한다. AI 과외 선생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빠르고 정확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생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종합 교육 플랫폼 '판다'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판다는 OCR(광학문자 인식 기능,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술을 통해 교육 문제의 수식과 텍스트 정보를 정확히 추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NLP 기술로 문제의 유형을 분석하고 풀이를 제공한다.

의료 분야에서도 다양한 AI 기술을 응용 중이다. 예를 들어, AI 기술을 활용한 컴퓨터 단층 촬영(CT)이나 자기 공명 영상(MRI) 분석은 의사가 환자의 영상을 빠르게 해석하고 병변을 정확하게 식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특히, 사람의 분석으로 발견이 어려운 초기 암 진단 분야에서 기대를 모은다. 다양한 기업에서 딥러닝 및 암 병리학을 접목한 알고리즘 기반체의 진단 소프트웨어를 개발, 발전 중이다.

이제는 예술마저 AI가 대체하는 시대가 왔다. 포토샵은 2023년 5월 생성형 AI 기반으로 텍스트 프롬프트로 이미지를 추가, 제거, 확장할 수 있는 도구를 공개했다. 이미 있는 이미지들을 학습하여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기존의 저작권성이 있는 작품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노래의 보컬을 다른 인물의 목소리로 바꾸는 'AI 커버' 기술도 주목받고 있다. 반면 예술 분야 속 AI 기술은 모방, 표절 등 잦은 논란에 휩싸이기도 한다.

챗GPT가 등장한 지 겨우 1년이 넘었다. 단 1년 만에 다양한 분야의 기업에서 저마다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출시하며 사회혁신을 이끌고 있다. 너무 빠른 성장 탓에 다양한 문제로 AI 과도기를 겪고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든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AI가 사회 분야별로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지켜봐야 할 때다.

__ 심야 자율버스 우이신설선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버스를 운행한다. 심야 자율 버스 A21은 작년 12월 4일부터 시민들에게 무료로 운행 중이다. 총 2대의 A21이 평일(월~금) 23시 30분부터 05시 10분까지 총 5회를 왕복 순환하며 운행된다. 배차 시간은 50분~70분 간격으로 긴 편이다. 합정-홍대-신촌-아현-서대문-세종로-종로3가-동대문 코스의 총 20개 정류장을 거친다. 정류장은 모두 중앙차선에 위치해 있다. AI 시스템으로 운행하는 자율주행 버스이기 때문에 우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길보다 차량의 순환이 빠른 중앙차선에 정류장을 만들었다.



기사와 수시로 소통하며 경찰청의 신호시스템을 실시간으로 받아 운행한다. 따라서 주행 중 속도 변화가 찾아 어지럽증을 느끼는 승객도 있다고 한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승객이 많으며, 탑승객들도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였다. 승차감은 일반 버스와 다를 게 없다고 느꼈으나 한번 급정거를 한 적이 있어 아직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A21은 데이터 축적과 안정화 작업을 거쳐 서울 외곽 순환(정량리 부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경대학교 신문사 취재부가 총 1가 정류장에서 합정역까지 A21 버스를 타보았다. 현재는 무료로 운행 중이지만 데이터 수집을 위해 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요금은 올해 상반기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자율주행 버스이지만 승객 안내와 돌발상황 시 운전원에게 기사와 안전요원이 탑승해 있다. 버스를 타면 안전요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해 달라는 안내를 한다. 버스 내 음성 안내로도 안전벨트 착용을 권하는 음성이 계속해서 나온다. 입석은 금지이며, 6세 미만 아동은 탑승이 불가하다. 자율주행 모드 점등 표시가 있어 승객도 현재 어떤 모드로 주행 중인지 알 수 있었다. 직진 코스일 경우 자율주행 모드가 켜진다. 도로에 차량이 많거나 코너링을 해야 할 경우엔 자율주행 모드가 꺼지고 기사가 운전한다. 자율주행 모드인 경우에도 우발 상황을 대비해 기사는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차량 내부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 승객들도 버스 이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 직원이

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A21은 데이터 축적과 안정화 작업을 거쳐 서울 외곽 순환(정량리 부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우이신설선은 2017년 9월 개통한 서울 최초 경전철(경량전철)이다. 강북구 우이동부터 동대문구 신설동 사이 11.4km를 연결하는 무인 지하철이다. 2량 경전철이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배차간격이 2~3분 정도로 짧다. 필자는 등교 시 우이신설을 이용하는데, 출퇴근 시간엔 승객이 꽉 차 몸을 움직이기 힘들 정도다. 무인 지하철이기 때문에 운전석이 필요 없어 창문으로 전철의 앞뒤 선로가 다 보여 마치 놀이기구를 탄 듯하다. 우이신설선 역시 안전을 위해 형광 조끼를 입은 안전요원이 탑승해 있다.

우이신설 운영사 우이신설경전철(주)(포스코 이앤씨 컨소시엄)은 서울시로부터 30년 운영권을 보장받았으나 과도한 적자로 6년 만에 스스로 사업권을 포기했다. 현재는 서울시의 재정지원으로 운영 중이며 2047년까지 우이신설선을 운영할 신규사업자를 모집 중이다. 우이신설선의 운영 코스 상 북한산에 가려는 고령 등산객들이 많다. 무인 승차가 가능한 승객의 이용 비율이 높아서 수익이 낮을 뿐, 승객들의 승차량 자체가 적은 것은 아니다.

__ 4차 산업 혁명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독자들은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 물론 정답은 없다. 누군가는 두려움으로 또 누군가는 설렘의 감정으로 기술의 변화를 맞을 것이다. 필자는 후자에 가까운 편이다. 기술의 발전은 더 이상 피해서도 안 되고, 피할 수도 없다. 인류는 이제 AI를 비롯

한 4차 산업 혁명 기술과 '공생'을 논해야 할 때다.

18~19세기 초반 1차 산업혁명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총 4번의 산업혁명을 맞이했다. 이제는 정보통신기술(CT)의 융합으로 산업과 사회 구조가 변화하는 현상을 일컫는 '5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탄생할 정도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술의 변화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사실 이에 대한 논쟁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4차 산업 혁명은 기술은 특하나 '부정 사용'의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딥페이크(deepfake) 범죄가 그것이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과 가짜를 의미하는 '페이스'의 합성어를 말한다. 딥페이크 기술의 탄생으로 유명인의 신체나 얼굴 혹은 목소리를 변조해 악용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이는 음란물, 거짓뉴스 등으로 번져나가며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문제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국내의에선 ChatGPT와 같은 거대 AI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다. 표절을 비롯한 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또한 이번 현장리포트를 준비하며 서울 심야 자율주행버스를 조사해본 결과, 자율주행 차량 같은 고위험 인공지능이 안전사고나 기본권 침해할 경우 별다른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미루어 보았을 때 인류와 기술과의 공생을 위해선 '법률 제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은 법률 문화 및 시민 인식 변화를 제고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던 시대와 기술 변화에 맞춰 동행하는 걸음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단순 기술의 발전이 아닌 최약의 상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슬기롭게' 기술의 변화를 맞이하는 방법이자 방향성이다.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인간과 삶, 그리고 우리라는 존재를 새롭게 정의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술과의 공생이젠 필연적이다.

__ 4차 산업혁명 장단점



▲ 픽사베이

과거 막연하게 생각되던 4차 산업 혁명은 미래의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현재 일상생활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는 OpenAI의 ChatGPT는 4차 산업이 얼마만큼 발전했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은 미래에 떠오르는 다양한 최신 분야에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우리를 윤택한 삶으로 바꾸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이면이 있듯 4차 산업 혁명 또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4차 산업 혁명은 부가가치, 생산성, 경제성장 등과 관련한 장점이 있는 반면 일자리와 범죄 등과 같은 단점이 존재한다.

의료와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4차 산업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헬스케어 및 제약 기업 존슨앤드존슨은 수술용 로봇 '오타바'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존슨앤드존슨의 매드테크가 올해 하반기 미국 식품의약국 장치 조사 면제 신청을 위해 로봇 수술 시스템을 제출하고 임상시험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수술실에 공간을 만들고 복잡한 수술 흐름을 단순화하며 유연한 임상 접근 방식을 지원하여 에티콘 사용 능력까지 제공한다. 또한 모든

종류의 수술에 혁신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환자들의 치료 개선을 돕고 건강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출처: 로보신문] 이는 외과 의사들이 이전보다 신속하고 정교하게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 과거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수술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생성형 프로그램들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제작자들은 이전보다 쉽게 콘텐츠를 제작 및 편집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세계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2020년대부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인한 경제성장이 둔화했는데, 이를 대신하여 4차 산업과 관련된 기술들이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다. 미국 투자는행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도입으로 세계 경제가 연 7%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세계는 저성장기에 빠져 있는데, 이는 IMF가 전망하는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인 2.8%보다 무려 4.2%p 높은 수치다.

반면 4차 산업 혁명은 우리에게 일자리 문제를 야기한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일자리의 미래에 따르면, 인공지능과 기술혁신으로 향후 5년간 전 세계 고용의 2%에 해당하는 약 1,4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인공지능은 음란물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한국AI교육협회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AI 범죄 피해액은 약 190조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26조보다 무려 50%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현재 힘든 상황이다. 관련 법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장 인물 관련 범죄의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현재 4차 산업 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에 맞는 법안과 사회적 인식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서경대 신문사 취재부와 함께 생활에서 활용되고 있는 AI를 살펴봤다. 어릴 적 상상했던 자동차가 날아다니고, 로봇이 길 거리를 돌아다니는 세상에 점점 가까워지는 듯해 감개무량하다. AI는 장단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분야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한계를 돌파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한다. 미래가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부터 AI 교육을 하고, 대학에서도 관련 학과가 우후죽순 생겨나는 상황이다. 하루에도 AI 관련 기사가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온다. 그러나 기술이 빠르게 변화할수록 관련된 법의 구축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비윤리적인

상황이 생기고 인간의 일자리를 앗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부작용이 따르니, AI 기술에 관한 법 체제의 구축과 시민들의 의식 개선 또한 중요할 것이다.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실생활 곳곳에 기술의 발달이 거처지 않은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10년 뒤엔 AI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세상을 가져다줄지 기대된다. 현재는 아직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더라도, 점차 일상에서 마주하는 AI 기술들이 많아지는 게 신기할 따름이다. 대한민국이 기술과 인간의 조화가 어우러지는 AI 기술 강국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달의 책

영원한 것을 바랄 때 - **순간을 잡아두는 방법** 오수영



책을 펼치자마자 “나의 메모들은 일상과의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한 발버둥이다.”라고 선언하는 듯한 저자의 결연한 태도에 과연 ‘순간을 잡아두는 방법’이 무엇인지 호기심이 가득해졌다. 기억과 망각을 반복하는 일상에서 스스로 지지 않기 위해 꾸준히 남겼던 메모를 모아 책으로 펴낸 저자, 그의 비밀스러운 일기를 훑어보는 것 같아 두근거렸다.

“모든 것이 영원할 것만 같던 시절이 있었다. 지금이 아닌 언제라도 기회는 무수히 찾아올 것이고, 그날이 오면 얼마든지 원하는 순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

세상에 영원불멸한 것이 있을까? 만물은 시시각각 변하고 세상만사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제와 오늘의 나도 분명 다르다.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영원한 것이 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하지만 영원한 건 없다고 소중한 순간을 놓치기에는 너무 염세적인 태도가 아닐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일, 하고 싶었던 일을 마침내 해내는 일을 모든 게 사라질까 두려워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건 어려서인 것이다.

책을 넘길수록 저자의, 가족, 인간관계, 사랑, 직장을 비롯한 현실적인 고민들이 이어지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책의 중간중간 저자의 손 글씨가 적혀 있어, 스스로 하는 질문인지 독자들에게 던지는 물음인지 모르겠는 문장들은 마음의 문을 조금씩 두드린다.

“사진으로 스치는 장면을 포착하듯 그 찰나의 마음을 잡아두기 위해 메모를 남겼다. 메모들은 아주 가끔 행동이 되었고 대개는 여전히 메모로만 남았지만, 잡아둔 이 모든 순간의 총합이 유일하게 영원에 가까울 수 있는 삶의 조각들이라고 믿는다.” 몇몇 속에 동등 떠도는 무수한 생각들을 완결된 형태로 전달하는, 평범한 문장들은 지난날을 반추하게끔 만든다.

잔잔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 그의 문장들을 찬찬히 읽고 있다 보면 문득 순간을 길게 늘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생각이 많아지는 밤 또는 생각이 필요한 밤에 두고두고 꺼내 읽고 싶은 문장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영원을 바라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순간을 잡아보자. “영원한 순간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을 어떻게든 잡아 두려는 애달픈 마음이 비로소 영원을 끌고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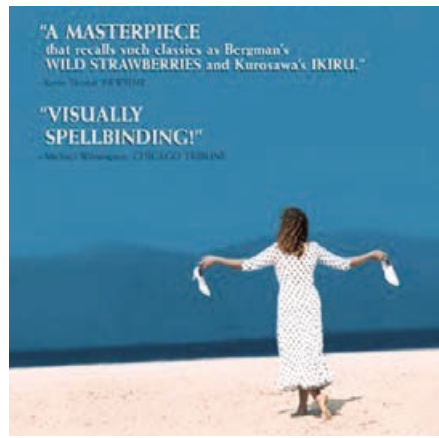
순간이 다시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이지만 영영 마주할 수 없는 순간이 있다. 그 자체로 끝난 영원한 작별, 그러나 소홀히 하지 말자는 다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바라는 소박한 마음을 관통하는 저자의 문장들을 따라가는 것을 멈추지 말자. 저자는 “삶은 무엇보다 앞으로의 날들이 궁급하기 때문에 살아볼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한다. 지금의 고민과 투정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결코 삶에 대한 낙관을 저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순간도, 순간의 기록마저도 결코 떠나갈 것을 알지만 날마다 오늘에게 작별 인사를 보내며 하루하루 마주치는 순간에 충실하라 결심한다.

잔잔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 그의 문장들을 찬찬히 읽고 있다 보면 문득 순간을 길게 늘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생각이 많아지는 밤 또는 생각이 필요한 밤에 두고두고 꺼내 읽고 싶은 문장들의 향연이 펼쳐진다. 영원을 바라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순간을 잡아보자. “영원한 순간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순간을 어떻게든 잡아 두려는 애달픈 마음이 비로소 영원을 끌고 온다.”

송민경 기자
(tildawn012@skuniv.ac.kr)

이달의 영화

삶의 끝에서 깨달은 영원 - **영원과 하루 (1998)**



변화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지론이다.

다만,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명백히 자각하고 있으면서 되레 영원을 갈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정녕 무가치한 일인가에 대해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어쩌면 자연 법칙에 굴복하지 않고 영원성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다. 자신의 필멸성을 인지했음에도 영원성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의 속성이 인류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변화의 추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지금도 영원에 관해선 다양한 갑론을박이 오고 간다. 다양한 예술작품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느낄 수 있으며 영화에서도 많은 감독들이 영원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쳐 놓는다. 그리스의 거장 테오 앙겔로풀로스도 영화 ‘영원과 하루’를 통해 영원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던지시 이야기한다.

‘영원과 하루’는 죽음의 문턱에 바짝 다

가선 한 노인인 따라간다.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린 문학계의 거장이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은 노인에게는 병원 입원까지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 하루 동안 노인은 ‘불멸의 시어’를 찾아내 평생의 과업을 이루고자 길을 나선다. 하지만 길 위에서 마주한 현재와 과거, 만남과 이별, 탄생과 죽음, 후회와 반성을 통해 영원에 관한 노인의 가치관은 완전히 뒤바뀌고 만다. 노인은 외로이 곁에 아무도 남지 않는 상태에서 그가 뒷전으로 생각한 가족과 함께했던 하루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다. 언젠가는 심장과 함께 멈춰버릴 기억이지만, 그에게는 그도 모르게 평생의 일부가 되어준 기억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테오 앙겔로풀로스 감독은 우주적인 관점 대신 다분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영원에 관해 고찰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굉장한 여운과 감동을 느끼게 해준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변화의 추세가 더욱 가팔라지는 지금도 영원에 관해선 다양한 갑론을박이 오고 간다. 다양한 예술작품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느낄 수 있으며 영화에서도 많은 감독들이 영원에 대한 자신들의 이야기를 펼쳐 놓는다. 그리스의 거장 테오 앙겔로풀로스도 영화 ‘영원과 하루’를 통해 영원에 관한 자신의 철학을 던지시 이야기한다.

‘영원과 하루’는 죽음의 문턱에 바짝 다

가선 한 노인인 따라간다.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린 문학계의 거장이지만, 시한부 선고를 받은 노인에게는 병원 입원까지 하루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 하루 동안 노인은 ‘불멸의 시어’를 찾아내 평생의 과업을 이루고자 길을 나선다. 하지만 길 위에서 마주한 현재와 과거, 만남과 이별, 탄생과 죽음, 후회와 반성을 통해 영원에 관한 노인의 가치관은 완전히 뒤바뀌고 만다. 노인은 외로이 곁에 아무도 남지 않는 상태에서 그가 뒷전으로 생각한 가족과 함께했던 하루의 소중함을 깨달은 것이다. 언젠가는 심장과 함께 멈춰버릴 기억이지만, 그에게는 그도 모르게 평생의 일부가 되어준 기억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테오 앙겔로풀로스 감독은 우주적인 관점 대신 다분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영원에 관해 고찰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굉장한 여운과 감동을 느끼게 해준다.

전준혁 수습기자
(nicejackkyhu@naver.com)

이달의 장소

영원이 아니라고 해도, 새로움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 **남산공원**



민들의 심터가 되어준다. 남산 타워, 남산공원, 남산 케이블카 등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장소별, 테마별로 갖추고 있는 매력이다.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할 장소는 ‘남산 공원’이다. 봄에는 아름다운 벚나무가, 여름에는 푸르른 녹음이 그리고 가을엔 오색 빛 단풍나무, 겨울에는 설산까지. 각 계절의 풍경이 시간에 흐름에 따라 변화하긴 하지만 언제나 새로운 풍경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발걸음을 재촉한다.

필자는 충무로역에서 남산 타워로 향하기 위해 ‘01B’ 버스에 탑승했다. 산림보호를 위해 남산 타워 인근부터는 관계자가 아닐 경우 자가용 이용이 불가하니 주의 바란다.

남산 타워로 향하는 길에는 구경거리가 정말 많다. 주인과 함께 산책을 나온 귀여

운 강아지부터 운동하는 시민들, 각기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나무들까지. 그중에서도 무엇이 제일 좋냐 묻는다면 점차 시야에서 멀어지는 서울 시내라 답하겠다.

이곳저곳 구경하다 보면 금세 남산 타워에 도착한다. 이쯤에서 주의해야 할 점 하나, 남산도 ‘산’이라는 점이다. 가파른 경사 길에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지만 펼쳐진 탁 트인 풍경에 절로 환한 미소가 지어진다. 남산 공원을 오를 때 편한 신발과 복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만만하게 봤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번 겨울, 남산공원에 방문해 아름다운 서울의 풍경을 눈에 담아보는 것은 어떨까? 분명 새로운 풍경이 독자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

· 주소 : 서울 중구 삼일대로 231
· 문의 : 02-3783-5900

· 운영시간 : 24시간 운영, 연중무휴
· 주차, 남/서 화장실 구분

이달의 전시회

아름다운 것은 영원한 것인가? - **반클리프 아펠 : 시간, 자연, 사랑**



드라마 ‘멜로가 체질’ 속에서 실연 당한 주인공에게 명품 가방이 말을 건넨다. “영원한 걸 믿으세요, 사랑, 한낱 시가꾼, 그 형을 따위에 속지 말고 나를 가지세요.” 사랑은 영원하지 않으니 아름답고 비싼 자신을 가져서 영원한 행복을 가지라고 말한다. 아름답고 비싼 ‘명품’을 가진다면 영원을 손에 넣은 것일까?

본 전시에서는 프랑스 하이엔드 명품 주얼리 브랜드, 반클리프 아펠의 하이주얼리 컬렉션들을 만날 수 있다. 1906년 메종(프랑스어로 ‘집’이라는 뜻이고 오프쿠튀르 매장을 뜻함, 본 전시에서는 반클리프 아펠

브랜드 자체를 의미함)의 설립부터 탄생한 약 400개 이상의 주얼리와 워치, 작품, 오브제, 아카이브들을 만날 수 있다.

전시 관람을 위해 M3층으로 이동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시간의 공간’은 이탈리아인 작가인 칼비노에게 받은 영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칼비노는 20세기와 21세기를 잇는 문학적 통찰로써 가벼움, 속도감, 정확성, 가시성, 다중성, 일관성의 가치를 정의했다. 칼비노에게 받은 영감을 가벼움은 깃털, 속도감은 시계, 정확성은 20세기의 혁명적인 세공 기술, 가시성은 동화의 실체화처럼 주제에 맞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M4층으로 이동하여 볼 수 있는 ‘자연의 공간’은 메종의 영감의 원천,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들이 전시됐다. 이 공간은 크게 동물과 식물로 구분된다. 붉은 장미를 루비로 표현하고 에메랄드로 푸른 식물을 표현하는 등 자연을 보석으로 대체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메종의 디자

이너가 표현한 다양한 색깔을 모두 보석과 귀금속으로 표현하여 특히 더 다채로운 색깔의 작품들로 눈을 즐겁게 했다.

마지막 테마는 ‘사랑의 공간’이다. 이곳은 메종의 시작과 가장 관련 깊은 곳이다. 1800년대 말 보석 세공사의 아들인 알프레드 반클리프 아펠은 보석 상인의 딸 에스텔 아펠과 결혼 후 1906년에 그녀의 남동생들과 함께 파리에 메종을 설립했다. 반클리프 아펠 역사의 시작이 사랑과 가족임을 의미하며 이 공간에는 마치 자신들 부부의 사랑을 의미하는 듯한 ‘러브버드 브로치’, 영국의 배우이자 인권운동가인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첫 손주 탄생을 축하하는 ‘바케를 초가’ 등 사랑 가득한 작품들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든다.

전시를 감상하다 보면 반짝이는 보석보다 더 반짝이는 반클리프 아펠이 추구한 시간, 자연, 사랑을 표현하고자 하는 마음에 감동하게 된다. 보석은 인간이 가치를 부여했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하지만 본연의 아름다움은 보석보다도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며 그것이 영원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영원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 본 전시에 꼭 가보길 추천한다.

이재근 수습기자
(worm1207@skuniv.ac.kr)

· 전시기간 : 2023. 11. 18 ~ 2024. 04. 14.
· 관람시간 : 화, 수, 목, 일요일 11:00 ~ 18:00 (입장 마감 17:00)
· 전시장소 : 성수동 디뮤지엄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83-21)
· 관람비용 : 성인(만 19세 이상) 12,000원, 청소년(만 13세~18세) 무료, 유아 및 어린이 (36개월~12세) 무료

이달의 음악

영원한 것은 영원을 바라는 영원하지 않을 이 순간

영원한 젊음,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사랑... 당신이 진정 바라는 '영원'은 무엇인가? 저마다의 영원을 노래하며 영원이란 점근선에 무한히 다가가는 노래들을 소개한다.

<p>♪ 〈젊은 우리 사랑〉 - 겸재차마</p> <p>“젊은 피가 젊은 사랑을 후회 할 수가 있나 나도 뭐가 뭘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나도 누구의 버림을 받게 그래도 나는 아무 상관없는 걸”</p> <p>누구나 사랑이 영원하길, 곁에 있는 이들이 변치 않길 소망한다. 애석하게도 우리의 사랑은 곧잘 끝나버리고, 미처 예기치 못한 이별의 순간들은 섬뜩하다. 하지만 끝이 두려워 사랑하기를 주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노래한다. 지금의 젊음도 사랑도 영원보단 잠시에 가까우니, ‘젊은 우리 사랑’은 그 얼마나 찰나의 눈부신 율슬일까. 지금과 지금의 사랑에 충실하겠노라 다짐해 본다.</p>	<p>♪ 〈Leica〉 - 에픽하리</p> <p>“폰은 내려놔 No more cameras 은 힘을 다해 살고 눈을 감을 때마다 미소 하나 건지는 것 이게 real 인생샷 찍는 법”</p> <p>우린 너무 많은 것들을 기억하려 애쓴다. 더군다나 우리는 당면하는 순간들을 그저 ‘네모’ 안에 담으려 심혈을 기울인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바라본 순간과 차가운 화면 속에 갇힌 추억은 과연 온전한 기억이자 영원이 될까? 네모 안에 세상을 담은 젊은 시야에서 벗어나 동그란 두 눈 크게 뜨고, 내 감각들로만 하루를 머금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p>	<p>♪ 〈forEVER (ft. TABLO)〉 - PSY</p> <p>“지금도 나 행복하데 그래서 나 걱정이 돼 너무 많이 행복해서 걱정이 돼 죽을 때까지 그리울까 그 그리울까 봐 영원히 추억하고 싶어 오늘 우리의 기억들을 오래 기억하고 싶어”</p> <p>우리가 간간히 씁쓸해지는 이유는, 다신 없을 듯 커다란 행복이 우리 삶에 존재했기 때문이며,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행복이 또 다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 아닐까? 입가심용 캔디처럼, 곧 돌아올 달콤한 기쁨을 음미하기 위해 잠시 씁쓸해지는 것이 아닐까. 비록 순간이 영원하지 않더라도, 영원을 바라게 되는 순간은 앞으로도 늘 존재할 것이다.</p>
---	---	---

김경민 수습기자
(anna2467@skuniv.ac.kr)

이달의 스포츠

“문화와 스포츠의 융합 2024 파리 올림픽, 이전과 달라지는 점은?”



▲ 출처 : 2024 파리올림픽 공식페이스북

2024 파리 올림픽 개막까지 1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행사는 1924년 파리 올림픽이 열린 지 정확히 100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개최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4 파리 올림픽은 역대 행사 중 가장 특징을 띄고 있다. 바로 무궁하다.

그 이유를 알아보자. 전 개최 국가인 2020 도쿄 올림픽이 팬데믹으로 인해 2021년 개최되면서 약 3년 만에 열리는 하계 올림픽이기 때문이다. 이는 올림픽 역사상 최장다. 기존대로라면 4년이 지난 시점에 개최되는

것이 맞다. 특징은 이뿐만이 아니다. 엔데믹 이후 개최되는 첫 세계 대회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외에도 신규 종목이 새롭게 추가된다. ‘브레이크 댄스’가 그것이다. 힙합 음악과 함께 행위 예술을 보여주는 이 문화는 미국에서 처음 탄생했다. 올림픽이 젊은 층에게 점차 외면받자 위기를 느낀 IOC(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20년 12월 집행위원회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신규 종목으로 채택했다. 이는 IOC의 파격 행보라 볼 수 있다.

사실 IOC의 노력은 2020년부터 시작됐다. 이들은 2020 도쿄 올림픽에서 젊은 층이 주로 즐기는 스포츠인 서핑, 스포츠 클라이밍, 스케이트보드를 신규 종목으로 추가했다. 비교적 성공적인 성적표를 얻은 IOC는 브레이크 댄스라는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었다.

올림픽 개막식 또한 새로운 양상을 띠 예정이다. 기존 올림픽 개막식은 나리얼 실내 ‘스타디움’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이번 2024 파리 올림픽은 다르다. 이번 개막식은

사상 최초로 야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소는 센 강(Seine River)이다. 센 강 주변으로는 ‘문화의 도시’ 파리답게 유서 깊은 건축물과 문화유산이 즐비해 있다.

2024 파리 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장 토니 에스랑게는 “각국의 선수단이 보트를 타고 센 강을 지나가며 올림픽의 시작을 알릴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출발하는 보트는 파리 유명 관광지인 노트르담 대성당, 오르세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 퐁네프 다리, 알렉상드르 3세 다

리, 그랑팔레, 에펠탑 등을 지나쳐 디네아 다리에 도착한다. [출처 : 경향신문]

종목별 경기는 파리의 랜드마크 주변으로 건설된 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스포츠 경기와 함께 아름다운 파리의 풍경 또한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와 스포츠의 융합, 2024 파리 올림픽에선 어떤 풍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된다.

이예은 기자
(kosoyi@naver.com)